

# 소통의 연결브리지

Bridge for Interaction

## —신뢰를 바탕으로



김득수 | Kim, Deuk-su, KIRA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새롭게 출범한 김영수 회장체제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기 때문에 새벽에 서둘러 협회로 출근했다. 회장이하 집행부는 물론이고 전담 사무처 직원들까지도 모두 모이는 자리다보니 이른 시간이지만 협회의 아침은 생기가 넘쳤다. 한편 새벽밥도 못 먹고 출근했을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다. 조식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햄버거와 커피 한잔으로 속을 달래며 시작된 업무보고는 4월 1일 기획실을 필두로 2일 운영실, 3일 친환경건축연구원, 4일 교육관리실, 5일에는 회원지원실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8일 등록관리실, 10일 문화홍보실, 11일 정책연구실까지 거의 매일 자기 부서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보고를 했다. 회장을 비롯해 상근부회장, 사무처장 그리고 각실 팀장 이하 담당 직원까지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게 되니 그간 우리 협회의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각 팀별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등 주요 업무보고를 충분히 듣고 점검할 사항과 보안할 내용들을 나누면서 각 팀장들의 결연에 찬 각오를 들으니, 앞으로 5년 정도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진 위상을 갖겠구나 생각하며 절로 뿌듯함이 느껴졌다. 2시간 이상 격의 없이 덕담을 주고받다 보니 서로에게 경청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소통이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우선 잘 새겨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협회가 사무처나 임원들만이 아니라 전 회원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지금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모든 개인과 단체가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도 경기 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측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때그때마다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막기에 급급해 있다면 변화의 풍랑을 헤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친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4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기 축구대회가 열렸다.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의 2013년 상반기 행사로 1박2일간 전남 순천에서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행사에 각 시도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대한건축사 축구연합회는 5월 25일 '2013 WA-CUP(건축사 국제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등 총 5개국 190명의 건축사 축구선수가 진주에 모여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 행사로 인해 2017 UIA서울 세계건축대회가 각국의 건축사들에게 잘 홍보되고 우리 건축사들의 국제친선에도 이바지했기를 바란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써, 작년에 이어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장의체험'이 두 번째로 열렸다.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동안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120명과 자원봉사 및 스태프 60명 등 총 180명 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였다.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영등포구·동작구건축심의위원 및 에너지관리공단 신도시·관광단지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건축사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에너지설비분과위원장 역임, 서울건축사회 복지회 신용협동조합 이사, 감사,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표로 재직 중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말자. 내가 먼저 움직이면 바람이 생긴다.  
희망을 가지되 현재에 충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함께 소통하면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집한 어린이는 120명이었지만, 그 부모와 주변 이웃에게까지 좋은 소문이 나고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큰 행사가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 이화순 건축정책관, 우리 협회 김의중 부회장 그리고 필자인 김득수 감사, 또한 충남건축사회 최종옥 회장이 특별히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새싹들을 보니 그들의 꿈과 끼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활기차고 밝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어린이들 중 몇몇은 훌륭한 건축사로 자라날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시간이 흘러 소양 높은 건축주로 자랄 것이다. 우리 협회의 사회를 위한 공헌 프로그램 중 이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옥과 함께하는 건축장의체험'의 총괄기획과 진행은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장의교육에 수년전부터 헌신해온 조원용 건축사가 진행했는데, 역시 건축교육은 건축사가 해야된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훌륭하게 잘했다. 앞으로는 이 행사가 더욱 확대되어 봄, 가을로 지속되기를 바래본다. 또한 초등학교 외에 중학생을 위한 진로탐구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한다. 어려서부터 건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장래 좋은 건축주로 자라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6월 2일 오전 8시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는 건설경제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 우리 협회 건축사 마라톤 동호회도 출전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건축사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여러 채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좋은 의도와 취지의 여러 행사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래본다.

필자는 감사로서 회원을 위한 일이라 판단되면 각종 세미나, 현지답사 및 탐방, 동호회 행사 참관 등 주어진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건축사지에 게재한 '사랑방 개방'에 이어 '소통의 연결브리지'가 되고자 한다. 회원의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 간 소통은 물론이며, 집행부와 사무처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협회와 대중과의 소통에도 기여할 길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이 일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집행부와 사무처부터 합심하여 소통에 힘쓰기를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상 사무처의 각 실과 팀별로 전체가 업무보고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새 집행부가 협회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이번 집행부는 효율적인 보고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만큼 집행부의 활동이 커질 것이고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리라 본다. 김영수 회장의 공약사항을 비롯한 당면한 현안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지 말자. 내가 먼저 움직이면 바람이 생긴다. 희망을 가지되 현재에 충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함께 소통하면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